

종법과 동일효력... 포교체계 정립

포교관련 법령이 제·개정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군승규정 등 6개 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총무원 기획실과 협의했다. 포교관련 법령 제·개정은 포교원이 올해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올초부터 작업을 해왔으며 이번 주중 총무원에 상정,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포교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이 명시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포교업무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승규정에 군승단에 대한 종단의 관리·감독권을 명시한 점이 주목을 끈다. 최근 인사과를 겪으며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부응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또 신도단체관리규정에서 신도단체 등록요건을 완화해 규모에 관계없이 의뢰인 법조인 등 전문적 신행단체의 종단등록을 가능하게 했으며 진일보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전국단위의 신도단체만 종단등록을 허용하고 예산지원 등의 혜택을 주었다.

종법은 종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제·개정되는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승규정 △군승의 효율적인 포교활동 및 수행을 위해 군승단 설치자를 명시 △군승단의 건립, 군승의 인사, 주용 불사 등의 종단 보고 의무화, 포교원의 군법당 지도방문 명시 △군법당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

조계종 포교관련 법령 제·개정

전문직·장애인 단체 종단등록 가능 군법사 인사 포교원에 보고 의무사항

회계로 분류하고, 수입·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와 장부의 보관 의무화 △군법당 운영위원회 설치 △비리군법사 호법부 직권으로 징계회부 가능.

국제포교사관리규정 △외국어 구사 능통하고 해외포교의 원력을 지니고 국제포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하여 자격을 강화 △자격시험 년 1회 이상 실시 △실제 국제포교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명예국제포교사증 발급 △자격취득 후 의무적으로 연수교육 의무화, 년 2회 이상 포교활동 보고서 제출.

신도단체관리규정 △의뢰인 법조인 교수·교사 언론인 공무원 예술인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장애인 등 특수계층의 단체등록 가능 △미등록 신도단체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명호 사용금지.

불교대학관리규정 △불교대학을 하며 1년 이상의 학제, 지정된 교사, 일정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

도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으로 정의 △학제 1년(수업시간 120시간) 이상, 필수 교과목(44시간 이상), 강사진 석사급 4인 이상(조계종승려 2인 이상 필수), 학생 수 30명 이상, 학사 20명 이상 등의 기준 이상의 불교대학만이 종단에 등록 △등록 불교대학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종단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포교원이 불교대학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명시.

포교대상규정 △포교대상 시상일 매년 12월로 규정 △포교대상 추천권자를 전국규모의 단체장에서 종단에 등록된 신도단체 대표자로 확대 △추천 및 접수기간을 폭넓은 참여와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학제 1년이상, 학생수 30명 이상등 불교대학 등록요건을 증명하며 명시하는 등 포교관련 6개 법령이 제정됐다. 사진은 조계사불교대학 강의 모습.

정주영씨가 소 500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 북쪽의 고향을 찾아가 세계의 시선을 끌고있다. 정주영씨는 곧 500마리의 소를 더 보낼 예정이다. 우리국민은 한결같이 천마리의 소가 통일외교를 뜨는 '통일 일관'이 되길 바라고 있다.

북교에서는 소를 불쌍히 비유하고 있다. 심우도(壽牛圖) 또는 심우도는 깨달음으로 가는 선수행의 10가지 단계를 소찾는 그림으로 묘사한 선화다. 천마리의 '통일 소'를 북으로 보내면서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심우도에 대비시켜 본다.

먼저 '심우'는 목동 이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서는 발심의 상징이다. 우리민족의 통일발심도 소찾아 나선 목동과 다르지 않다. '견적'은 소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이다. 통일의 그날을 위해 해야할 일들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랑일뿐 실천이 없으니 발자국을 본 정도다. 거기서 한단계 올라서면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려는 작업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산가족 상봉을 시도하고 간간히 남북물자교류를 하니 소를 어렵듯이 본 '견우'에 비유할 수 있겠다. '득우'는 소를 찾았지만 아직 길

들여 지지 않은 상태다. 더 닦아야 하는 이 단계는 북동포동기운동, 경수로 공사지원등을 연상시킨다.

'목우'는 소에 풀을 먹인후 고삐를 물러 돌아오는 장면이다. 천마리의 '통일소'가 통일외교를 터, 울가를 속초에서 유람선을 타고 원산으로 들어가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다... 좀 성급하지만 통일로 가는 길이 '목우'쯤에 있다고 해도 좋을 리라. 가슴실레는 단계지만 심우도에 서는 깨달음위의 방심을 경계하고 있다. 여섯번째 '기우귀기'에서는 소를 타고 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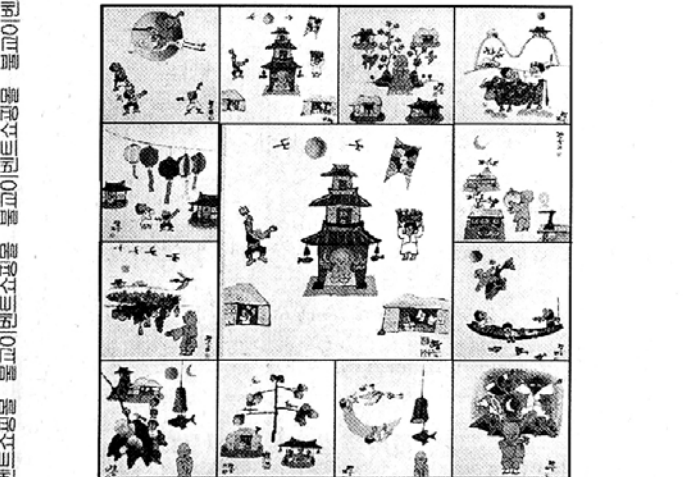
를 불고 돌아온다. 피리 불고 흠을 추는 통일찬기가 이방 곳곳에서 열리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소는 오간데 없고 사람만 있는 '망우존인', 여기서는 하나만 한반도가 있을 뿐이다. '인우구망'에서는 소도 자기도 있는다. 일원상속에 평화로운 사상이 열리는 '반분한원'에서는 수연산청(水緣山靑)의 광경이 전개된다. '입전수수'는 방편의 세계, 이웃나라 구제등 이타평을 한다. 7천만 우리 겨레가 한마음 열기만 하면 못할 일도 아니네...

목어

통일소의 심우도

불기 2543(1999)년 카렌다 주문 받습니다.

불교이벤트 카렌다 시리즈 I / 제목 : 어진이 (12장)
전통적 불교문화에 동화적 요소의 그림을 접목시켜 세련미가 나타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 작품종류 : 1) 어진이 (12장) 2) 산과 삼 (12장) 3) 육바리밀 (6장) 4) 초파일 (1장)
◆ 제작부수 : 500,000부
◆ 배포기간 : 불기 2542(1999)년 6월 25일 ~ 불기 2542(1998)년 11월 30일
◆ 탁상용은 100부이상 주문 제작합니다.
◆ 특전 : 8월말까지 주문시 1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카렌다 시리즈 2, 3, 4 는 다음 광고를 기대해 주세요!

◆ 온라인 구매번호 (예금주 : 손혜자)
• 농협 : 069-12-141862 • 국민은행 : 235-21-0452-984
• 우체국 : 012245-0171444 • 외환은행 : 189-19-13864-1

"갈등의 벽 허무는 빛의 화합을"

수요 인터뷰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밝히기' 선포 전국불교산악인연 손현수 회장

1년만에 3만회원 동참 단위산악회 80곳 목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밝히기' 행사 선포식을 가졌는데요. 이 행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민족에게 있어 가장 큰 단면과제는 조국통일과 국민화합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민족과 숨결을 같이해온 불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불자들이 한반도 108곳의 산봉우리에 불법의 등불을 밝혀 그동안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던 갈등과 시기, 미움과 다툼, 혼돈과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고 다가오는 21세기를 화합과 희망의 세계로 여는 계 뜻이 있습니다. 불자들의 원력과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조국통일과 국민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인데 그때에 청장불국토도 건설되지 않겠습니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북한측과도 타협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밝히기' 대장정은 한민족이 하나됨을 위한 북한동포돕기운동도 같이 열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측과 협상과정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정부차원에서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햇빛정책'을 쓰고 있어 민간교류가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

전통사찰 공공성 보장 차원

농지법 개정 왜 필요한가

법제처가 '농지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입법불가 판정을 내린것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매우 허망하다'는 입장이다.

농림부가 3월 관보를 통해 시행규칙을 공고하고 5월 8일 법제처로 심의를 의뢰할 때까지만 해도 전통사찰의 농지 소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계종은 국회에서의 농지법 개정의 계속 유보되는 상황에서 작년 10월 이회계 당시 농림부 장관과의 약속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이 추진됐던 점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 작년 대선에 김대중대통령의 공약사항에서 불교관련법개정의 약속이 있었다.

현재의 농지법 제6조1항은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21조1항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것. 그러나 농지법 제6조2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의 예외로 9가지의 경우에 한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조계종의 농지법 개정 요구는 바로 이 예외조항에 전통사찰을 삽입하고자 한 것. 전통사찰의 공공성과 문화재 관리 보존에 따른 농지 소유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법의 개정이 없이 전통사찰이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농지전용에는 농지의 공시지가에서 20%에 해당하는 재원을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적은 부담이 따르게 된다. 또다른 방법

으로 영농법인의 구성을 통한 농지구입이 권유되고 있지만 이 역시 개별 사찰이 일일이 법인을구설할 수 없다는 현실에서 '영양가'가 없는 대안.

조계종은 삼보전재의 유실을 막기 위해 공공의 목적에 의해 강제 수용되는 사찰토지에 대한 대토의 의무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수용된 농지만큼 다른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사찰이 아닌 개인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는 수순에 빠져 온 것이 시간의 사정이다. 토지수용법에 의해 매각된 조계종사찰의 농지는 95년에 4만6천8백71방미터였으며 96년에는 12만1천7백9평이나 된다. 결국 그만큼 제3자 명의의 사찰 농지가 늘어난 셈이다.

이같은 사찰토지의 제3자 명의화는 장기적으로 정재의 유실에 대한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조계종의 우려다. 때문에 농지법을 개정, 그간 제3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되찾고 효율적인 사찰농지 관리를 위해서는 농지법의 개정이 필수조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통사찰이 농지법제6조2항이 지정하는 예외조항 속의 학교, 실습지등에 비해 일정한 공공성을 갖고 있는만큼, 조계종의 농지법 개정 요구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조언이다. 아직 새로운 종단차원의 대응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전통사찰의 농지소유는 타당성이 있을뿐 아니라 반드시 이뤄야할 현안이라는 데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opia.com)



하며 추진중이요.
-불교산악인연합회의 현황은 어떤지요.
▲지난해 본회가 창립한 이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사무대중 여러분께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산행을 통한 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루어 이 세상을 밝힌다'는 불교산악인들의 적극적인 신 활동들이 불교산악인연합회를 굳건히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13개 광역시·도 지회 및 33개 단위 산악회에 3만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습

니다. 창립 이후 모든 면에서 2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불교산악회가 많은 만큼 더욱 가입하는 단체가 늘 것으로 전망합니다.
-불교산악인연합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요.
▲조직구성이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식이 아닌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단위산악회를 중심으로 매월 1회이상 산행으로 수행을 다져온 것과 불교종중을 위한 불자들의 열성적인 노력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불교와 산은 떼어놓고 생각 할 수가 없듯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자인 것도 그 하나의 발전을 이루는 핵심이지요.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지요.
▲중앙회를 먼저 확대하여 개관한 뒤 전국 16개 지회에 사무국을 두고, 단위산악회도 80곳에 늘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시행중입니다. 또 산행학교도 개설하고 월회보다 발행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인 불교산악인연합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내년에 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불교이벤트

최고의 품질, 올바른 가격
불교이벤트가 만들면 다릅니다!

〈T 셔츠〉
해탈 T, 명상 T, 방생 T
(위 캐릭터 중 선택 인쇄 가능합니다.)

〈색〉
목연 T, 어린이 만화책, 어른용 2단 색鉛, 저금통, 오프너, 기초교리, 법요집, 〈한수막〉

〈레고〉
대 : 15,000원
중 : 10,000원
소 : 5,000원

〈색〉
대 : 15,000원
중 : 10,000원
소 : 5,000원

〈부채〉
대 : 15,000원
중 : 10,000원
소 : 5,000원

〈수〉
대 : 15,000원
중 : 10,000원
소 : 5,000원

여름불교학교용품전

* 가격
T셔츠
어린이용 : 5,500원
어른용 : 6,500원
(청소년용)
색鉛
어린이용 : 2,000원
어른용 : 3,000원
허리색
어린이용 : 2,500원
어른용 : 4,000원
등 색 : 6,000원
법요집, 기초교리차트 (150,000원)
부 채 : 600원
조끼
어린이용 : 10,000원
어른용 : 15,000원
저금통, 오프너 1,000원

〈수〉 50, 100, 150만원

다기(백산요)
3인용 천목, 3인용 분청, 1인용 분청, 다포

다기
1인용 : 1만원
분청 : 4만원
천목 : 6만원
다포 : 5천원

기획 상품

연달수의 부모님께 수의를 준비해 드리세요.

다기(백산요)
3인용 천목, 3인용 분청, 1인용 분청, 다포

◆ 대리점 모집중 : 부산, 대구, 광주 지역限

◆ 불교이벤트
• 본사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번지 다보B/D (불교방송내 B1층)
전화 : (02) 716-7790~1 팩스 : (02) 716-7792

◆ 불교이벤트 지점
• 충주지점 : (0441) 851-8478 (FAX 겸용) • 홍릉지점 : 852-2802-8186 FAX : 852-2802-4836
• 미국 LA지점 : 213-620-9933 FAX : 213-620-9955

불교이벤트 카렌다 시리즈 I / 제목 : 어진이 (12장) 전통적 불교문화에 동화적 요소의 그림을 접목시켜 세련미가 나타나도록 표현하였습니다.